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활동이 심리적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 영 희(건국대 강사) · 이 승 신(건국대 교수) · 박 미 석(숙명여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의 여러원인 중 하나인 자녀양육문제와 노령화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활동이 조부모들의 심리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2007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패널조사에 응답한 전국 60세 이상의 남녀 27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9항목)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심리적 건강상태, 손자녀 돌봄활동, 일반적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존재, 거주지역, 가구원수, 가계소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sps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T-test, ANOVA를 통한 차이 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년기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과 배우자존재, 가구원수, 가계소득, 손자녀 돌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높은 집단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이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는 적을수록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게 나타났다. 손자녀 돌봄에서는 손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손자녀가 있어서 돌보는 집단이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9가지(집, 이웃관계, 경제적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부부생활, 일, 건강, 생활전반)로 구분하여 각각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심리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전체에 대하여 손자녀 돌봄활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손자녀가 있어서 돌보는 집단이 건강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전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심리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러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활동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손자녀 돌봄활동은 심리적인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노년기의 심리적인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자녀 돌봄행동이 가족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계되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지원정책과 사회지원제도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